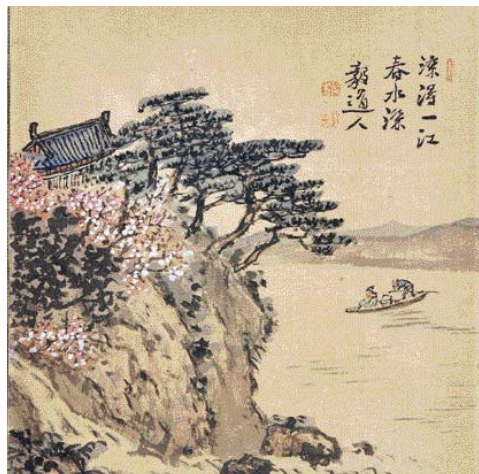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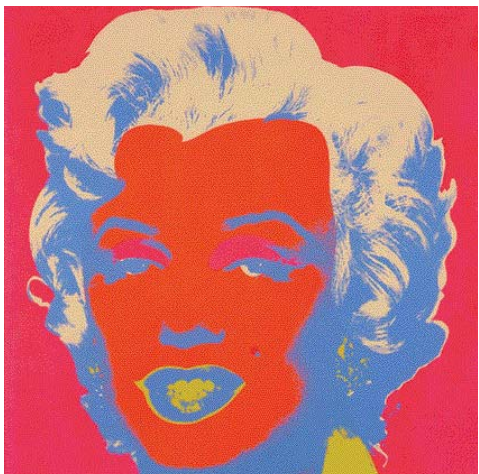




의재 허백련 작 '춘경산수'



천경자 작 '정원'



앤디워홀 작 '핑크 마블린'

대가들의 명작 한자리서 본다

보성 우증미술관 개관 2주년 동서양 아우르는 '명품전'

박수근·김기창·피카소 등 예술혼 감상 내달 31일까지

보성 하면 녹차밭을 떠올리지만 숨어있는 '문화명소'가 하나 더 있다. 명작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이번 여름에는 발품을 팔아서라도 미술관을 둘러 보기드문 '명화'를 감상해보자.

보성 우증미술관(관장 우영인)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31일까지 근현대와 동서양을 아우르는 '명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 중 최고의 명작들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엄선해 전시하는 '명품전'이다. 박수근을 비롯해 20세기의 거장 피카소·앤디워홀·데미안 허스트부터 의재 허백련, 남궁 허전, 운보 김기창 등 한국화 대가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먼저, 20세기 입체파 거장인 피카소를 비롯해 조각 모빌의 창시자이자 키네틱 아트 선구자인 알렉산더 칼다, 초현실주의의 대표 작가인 호안 미로, 프랑스 화가로서 감각적인 화풍을 만들어 낸 마리 로랑생의 판화가 전시된다.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풍경'과 앤디워홀의 '핑크 마블린' 등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해 현대미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영국 현대미술의 부활을 이끈 데미안 허스트의 도트무늬 작품은 실험적 약에 쓰이는 안료의 색을 이용한 회화작품으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작품이다.

한국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씨의 작품 '요

셉 보이스의 초상'과 천경자화백의 작품 '정원'과 '바리의 처녀', 도상봉씨의 '백자 향아리가 있는 정물'과 김창렬씨의 '물방울' 등을 통해 한국 현대 미술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제2전시실에는 목재 허행면, 산정 서세옥, 운보 김기창, 금봉 박행보, 소림 조석진 등 한국화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한국의 정서와 살아 숨 쉬는 고유한 전통의 미감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의재 허백련, 심방 박승무, 이방 김은호, 심산 노수현, 소장 변관식, 청전 이상범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한국화 6대가'들의 예술혼을 비교·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영인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품 중 누구나 들으면 알 만한 명작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작품만을 엄선해 선보였다"며 "이번 전시회를 찾아 말라버린 감성샘을 자극하고 인상 깊은 경험을 안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증미술관은 이번 전시와 더불어 'KB 박물관 노닐기 사업'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3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생(3~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전시관람과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군인·취학 아동은 1000원(단체관람은 30% 할인)이다. 문의 061-804-109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운보 김기창 작 '수성동'



김환기 작 'Moring star'

동신여고 광주학생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기대상에 조은영양

제21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동신여고가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8일 호남대학교 상촌캠퍼스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연극제에서 동신여고(지도교사 기수진)는 게오르그 카이저의 '메두사의 뱀목'으로 영예를 안았다.

'메두사의 뱀목'은 최우수연기상(장은지), 우수연기상(문지선)도 수상했다.

우수작품상은 전남여상의 '우리연

니 박금희'가 받았으며 장려상은 자동차설비공고의 '청춘예찬', 장덕고의 '우리읍내'가 차지했다.

연기대상은 '우리연니 박금희'에서 열연한 전남여상 조은영양이 받았다. 동신여고는 오는 8월10일~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제 14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연극제에서는 '모놀로그(독백) 대회'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상은 양승호(전주제고 2년)양이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푸른연극마을 전국연극제 은상

박규상씨 연기상 수상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 28회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푸른연극마을은 지난달 30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전국연극제에서 박재구 시인의 시를 각색한 작품 '사평역'(연출 오성완)으로 은상을 받았다.

'사평역'은 무대미술상(김명태)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작품에서 역장으로 출연한 박규상씨는 연기상을 수상했다.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을 배경으



로 1980~9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게 하는 작품이다. 푸른연극마을은 창작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극단으로 지난해에는 김영랑의 삶을 조명한 '람아 람아 영랑아'로 제6회 고나마루 향토연극제에서 대통령상과 연기상·연출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체험의 고전 '벚꽃동산' 무대에

한국배우협회 광주지회

공동예술극장 17일까지

최근 들어 가벼운 웃음을 전하는 연극 작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오랫동안 무대에 올려진 '고전 작품'들은 한번쯤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배우협회 광주지회(회장 류지영)가 조금은 묵직한 고전을 준비했다. 배우협회는 안톤 체홉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17일까지(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30분) '벚꽃 동산'을 무대에 올린다.

'세자매', '갈매기'와 함께 안톤 체홉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벚꽃동산'은 아름다운 '벚꽃동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러시아 몰락 귀족을 중심으로 귀족과 부르조아의 탐욕, 지식인들의 위선,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등을 그린 작품이다.

농노의 아들이지만 상인으로 돈을 모은 로빠힌은 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대지

주 라네프스카야 부인에게 벚꽃동산을 개간해 별장으로 개발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인은 옛 영화를 잊지 못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며 생활하고, 결국 벚꽃동산은 경매로 넘어간다.

20세기초 러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품이라 2010년 현재 관객들이 느끼기는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쯤 볼 만한 작품이다. 바라 역의 고나영과 라네프스카야 역의 류지영의 연기가 눈에 띄며 지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한 덕에 연기 앙상블도 좋다. 특별한 장치는 없지만 심플한 무대 역시 눈길을 끈다.

이기인·정순기·김상오·오성균·임홍석·박선영씨 등이 출연하며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등을 수상한 박혜선씨가 연출을 맡았다.

'월드 오브 다크나이트'에 이은 공동예술극장 상설 공연의 두번째 작품이다. 세번째 공연될 연극은 박운모의 모노 드라마 '아버지'다. 문의 062-529-94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뜰살뜰 혼수 체험하세요

웨딩박람회 '결혼상품전'

4일까지 운암동 웨딩타워

웨딩박람회 '웨딩 미디어 결혼상품전'이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시 북구 운암동 웨딩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웨딩미디어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웨딩드레스 전시와 웨딩포

토 스튜디오가 마련한 웨딩 앨범 전시 등으로 구성되며 예물, 허니문, 가전, 가구, 폐백 업체 등이 참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오후 2시에는 성격 유형 및 심리검사인 애니어그램 전문강사

윤여울(남부대 강사)씨의 특강도 마련돼 있다. 박람회 참가자에게는 경품을 증정하며 핸드 프린팅 커플티 만들기 등 체험전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2-710-8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미학미술사학회 세미나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서

한국미학미술사학회(회장 장정화·사진) 주최 춘계학술세미나가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발제자로는 조정육(서울산업대 외래교수)·이서영(일본 오사카대 교수)·

오윤철(조선대) 씨가 나서며 각각 '정선·이광사의 사공도시품첩 연구', '문화예술경영과 미래가치·예술과 복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조지 디키의 예술철학·예술제도론'을 발표한다. 조고미(호남대 교수), 윤익(광주시



립미술관 학예실장), 김은영(광주비엔날레 정책연구실장)씨가 질의자로 참여한다.

한국미학미술사학회는 지난 2003년 8월 창립, 논문집 '한국미학미술사학'을 발간해 왔으며 학술세미나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비엔날레 참여작가 작품 제작 함께 할 무용가 모집

20일까지 이메일 접수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 기간 참여작가의 작품 제작에 동참할 현대 무용가를 모집한다.

참여자개인 티노 세갈(Tino Sehgal)은 미술과 무용의 경계를 넘나드

는 실험적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로 이번 비엔날레에 '얼굴로 무언가를 나타내려하지 말고 브루스, 댄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춤추라'를 선보이게 되며 이를 시연할 참여자를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현대무용 전공자 혹은 전문 무용가로 행사기간 참가가 가능해야 한다. 전시기간 동안 오전 9시부

터 6시까지 하루 2시간 이상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에서 활동하게 된다.

오디션을 거쳐 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7월20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namhong@gb.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8-424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한포시영 영화사영)

1관	나이트&데이 (15세)/필립 모리스 (18세)
2관	맨발의 꿈 (전제)/필립 모리스 (18세)
3관	방자전 (18세)
4관	나이트&데이 (15세)
5관	포화속으로 (12세)/파괴된 사나이 (18세)
6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전제)
7관	슈렉 포에버 (전제)/여대생 기숙사 (18세)
8관	스플라이스 (18세)
9관	포화속으로 (12세)
10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향토시영! 영화시영! 매일 실사상영 / 호남제주차량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하남점

1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전제)
2관	슈렉 포에버 (전제)/여대생 기숙사 (18세)
3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4관	스플라이스 (18세)
5관	방자전 (18세)/맨발의 꿈 (전제)
6관	필립 모리스 (18세)
7관	맨발의 꿈 (전제)/A-특공대 (15세)
8관	포화속으로 (12세)
9관	포화속으로 (12세)/나이트&데이 (15세)
10관	나이트&데이 (15세)

구. 권면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슈렉 포에버 (전제)	최고급관
2관	나이트&데이 (15세)	
3관	방자전 (18세)	
4관	스플라이스 (18세)	
5관	필립 모리스 (18세)	
6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전제)	
7관	A-특공대 (15세)/맨발의 꿈 (전제)	
8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9관	포화속으로 (12세)	
10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2관	포화속으로 (12세)
3관	나이트&데이 (15세)
4관	맨발의 꿈 (전제) / 방자전 (18세)
5관	A-특공대 (15세) / 나이트&데이 (15세)
6관	슈렉 포에버 (전제)
7관	슈렉 포에버 3D(자막)(더빙)(전제)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